동아프리카 공화국

동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의 혼란의 시기 중에 세워진 수많은 엉성한 국가들 중 하나로써, 사실상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괴뢰국입니다. 동아프리카 공화국(이후 동아공)의 주 수입원인 해적은 소말리아에 밀려 국가를 지탱하기에 충분하지 못했고, 궁여지책으로 중아공에게 대부분의 기업과 국가 기반시설의 운영권마저 팔아넘긴 상태입니다.

와칸다, 콩고, 그리고 소말리아와의 연이은 전쟁이 이어지자 동아공 정부는 파산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습니다. 의회는 국민들이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는 권한을 미주연합에게 팔아넘기고 대신해 펩시를 수입할 것을 의결했지만, 이 법은 수많은 반대에 직면했습니다. 동아공의 총리, 파로크 불사라는 '코카콜라는 이제 시대에 뒤쳐졌다. 미래는 펩시의 것' 이라며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, 이는 커다란 불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.

소말리아와의 사략선 건함경쟁, 콩고와의 분쟁, 마다카스카르에서 파견되어 온 조류 스파이까지... 동아공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. 수많은 해적들이 몰락하고 일용직으로 내려앉았으며, 정부의 지원이 끊어진 캄챠카 반도의 동아공인들은 돈벌이는 커녕 집에 돌아갈수도 없는 난민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.

과연 총리는 그의 매력적인 뻐드렁니로 이 나라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그 전에 그의 비밀스런 남성편력이 드러나 똥꼬충이라는 비난에 휩싸여 사퇴하게 될까요? 마지막으로, 동아프리카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?

"Is this the real life?

Is this just fantasy?"

분열된 사회 - 정치력 획득-50%

낙후된 산업 - 건설 속도 - 20%

국가 해적 지원 정책 - 모든 함선의 건조 속도 +15%, 수입에 할당되는 민간 공장 -5%

극동의 유민들 - 전쟁 지지도 -50%